

# 일본, 독서운동으로 '지식강국' 기반 다진다

'아침독서운동' 과 '북 스타트 운동' 펼쳐

백원근 | 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출판에 대한 새로운 비전보다는 구조적 불황 담론이 우리 출판계를 억누르고 있다. 사회 전반의 합리적 시스템 결여와 IT(정보기술)혁명으로 독자의 눈과 주머니가 탈(脫)독서화의 조류에 휩쓸리는 데 대한 불안과 대다수 출판사에서 매출 저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배주의적 경향마저 보이고 있는 최근의 담론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도전에 대한 응전도 없이 모든 책임을 외부상황에 돌리려는 안이함이 엿보이는 탓이다.

어느 시대든 출판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했다. 이 변화의 중심에 독자가 있다. 때문에, 출판시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서는 출판계가 독자를 먼저 제대로 읽어야 한다. 또 새로운 독자층을 끊임없이 육성해야 한다. 그런 노력 없이 '우리가 규정한 독자'가 '우리가 만든 책'을 읽지 않는다고 탓할 수는 없다. 독자는 자생성이 강하지만, 더 많은 경우 사회환경에 의해 형성되거나 소멸하기도 한다. 지금 우리 사회의 독자층은 늘고 있는가 줄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출판계가 독자층을 늘리고 있는가 줄이고 있는가? 이런 물음을 일본의 사례를 통해 던져보자.

## '아침독서운동'으로 독서환경 조성해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어린 세대로 갈수록 '부독자'(不讀者)층이 증가하면서, 소수의 다독자와 다수의 부독자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만화를 독서의 유인기제로 삼으려는 노력이 학교와 공공도서관의 '만화 장서 만들기'로 이어졌다. 하지만 오락매체에 빠진 아이들을 독서로 이끄는 데 만화는 역부족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더욱이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이제는

만화조차 읽지 않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988년 치바(千葉)현의 여교사 오오즈카 에미코(大塚笑子)가 '아침독서'를 시도했다. 아침독서란 오전 수업시간 전 10분간 학생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것이다. 강제적인 독후감도 없고 읽는 분량도 자유다. 때문에 책을 싫어하던 학생들도 차츰 책을 좋아하게 됐다. 이 성공적인 사례가 알려지면서 전국 초중고 학교에 급속히 전파됐고, 이제 이 운동을 실시하는 학교가 약 5천개로 늘었다. 이 때문에 책과 답을 쌓은 부독자 학생층의 증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운동은 독서율 증가 못지 않은 부수적인 효과도 얻었다. 학생들 상호간에 책을 공동 소재로 하는 대화가 늘어 교실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집단 따돌림이나 지각생이 줄고, 학생들이 차분해졌으며, 어려운 한자를 잘 읽을 수 있게 됐다는 등의 사례보고가 각 학교에서 이어졌다. 독서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외감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 것이다.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독서 전문가들은 어른들이 이를 본받아 책을 즐겨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10분 독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방심리가 강한 아이들의 독서습관 형성뿐 아니라 가족간의 대화와 화목에 독서만큼 유익하고 경제적인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부모가 책을 읽고 책에 대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정의 아이들일수록 독서량이 훨씬 많다는 조사도 나왔다(《마이니치신문》, 2000.10.27).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가정의 독서대화 유무가 학생간의 독서량을 두배 이상 차이나게 만든다. 또 이 조사는 유아기에 부모가 그림책을 많이 읽어준 학생들일수록 독서량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주고 있어 독서습관 형성에 부모의 책 읽어주기나 책에 관한 대화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유아들에게 책 읽어주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업계도 이에 동참했다. 출판단체들이 4년 전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어린이 책의 날'로 정하고 전국 서점(현재 156개) 매장에서 책 읽어주기 행사를 펼쳤다. 이 행사는 대개 지역별 이야기 모임에 소속된 주부들이 한시간 정도 종이연극과 동화책 읽어주기를 병행하는 형식이다. 행사 때마다 엄마 손을 잡고 온 아이들로 서점은 북새통이 된다. 일본 최대의 출판도매회사인 닛판(日販)에서도 지난 1978년부터 개최된 아동도서전시회의 그림책 읽어주기 행사를 발전시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거러쳐 서점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이야기 마라톤'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 112개 서점에서 월 1~2회씩 정기적으로 진행중이며 점차 이 행사에 동참하는 서점이 늘고 있다.

## 2000년 '어린이 독서의 해' 성공적으로 마쳐

작년 일본은 책을 테마로 민관 일체가 된 국가적 행사인 '어린이 독서의 해'를 성공적으로 치뤘다. 지난 1993년 시행된 우리의 '책의 해'와 비교되는 점은, 일본의 경우 범정부적 행사이되 그 실행 단계는 철저히 풀뿌리 독서운동이었다는 데 있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수많은 민간단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다양한 행사로 어린이 독서생활화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서점의 어린이책 판매량도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어린이 독서의 해'는 1999년 8월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고, 이후 국회·정부·민간단체가 망라된 '어린이 독서의 해 추진회'를 결성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 도쿄 우에노(上野)에 개관한 '국립 국제어린이도서관'은 국제어린이도서관 설립추진의원연맹(국회의원 188명)이 중심이 돼 이뤄낸 개가다. 이 도서관은 내년 전면개관시 세계 80개국의 장서 40만권을 갖추게 된다. 어린이와 책을 주제로 한 각종 기념식과 심포지엄, 어린이책 이벤트가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치뤄졌다는 게 주최측 평가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독서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어린이 독서의 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이른 시일안에 제정될 예정이다. 법안 추진자는 30권 이상의 동화책을 펴낸 동화작가이자 중의원 의원인 히다 미요코(肥田美代子)씨. 히다씨는 '어린이 독서의 해'를 발안한 장본인으로 이 법안의 취지가 "책과 어린이의 만남은 어린이의 언어, 감정, 정서, 표현력, 창조성을 키우며 좀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불가결하다는 것, 그리고 가정, 지역사회, 학교 등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경우에 모든 어린이들이 그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 의원연맹은 이 법안 외에도 국제어린이문화기금 창설과 어린이 독서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장래를 위한 투자인 셈이다.

### 새로운 독서운동, 일본판 '북 스타트'

'어린이 독서의 해'를 계기로 새롭게 시작된 독서 캠페인이 '북 스타트'(Book Start) 운동이다. 북 스타트는 생후 4~6개월 사이에 건강진단을 받는 모든 신생아와 부모들에게 보건소 등에서 그림책 1~2권이 든 북 스타트 가방을 안내문과 함께 선물하는 운동이다. 안내문에는 아기와 함께 책 읽는 방법, 책 읽어주기를 시작하는 방법 등 젊은 엄마들을 위한 독서법이 실려 있다. 갓 난아기 때부터 독서습관이 몸에 배게 하자는 이야기다. 아기의 육체 발달을 위해 모유가 필수적이듯 아기의 언어력과 감수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엄마 품에서 사랑을 느끼고 만족하며 타인을 신뢰하는 마음의 성장 역시 불가결하다. 북 스타트는 바로 책을 매개로 아이들에게 이런 즐

거움과 정신의 영양소가 공유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운동의 전범이 된 것은 1992년 영국의 버밍엄에서 시작돼 현재는 영국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아 독서운동이다(추진기구는 자선교육단체인 북 트러스트). 이 운동에 관심을 보인 일본문화계가 현지 시찰 후 지난 11월 '북 스타트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도쿄의 스기나미구에서 시범적 운영에 들어갔다.

### 출판업계의 독서운동

출판, 유통, 서점을 망라하는 업계 차원의 독서운동 역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4월 23일 '세계 책의 날' 홍보 및 공동광고/판매, 4월말의 서점 복권 추첨 및 동경국제도서전의 독자사은세일, 5월 초의 어린이 독서주간, 7, 8월의 잠지월간, 10월의 독서주간 및 간다(神田)의 고서축제 등은 소략한 연간 일정이다. 이외에도 서점에서 연중 수시로 개최되는 사은세일 행사, '경로의 날'이나 '성인의 날', 입학·입사 시즌 등에 발맞춘 추천도서 발표 등 각 단체들의 독서 프로모션 활동이 매우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독서추진운동협의회(www.jpic.or.jp/site/dokushinkyoo)는 1959년 출판계와 도서관계가 협력해 결성된 독서단체로, 패전 후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1947년부터 독서주간을 실시한 독서주간 실행위원회를 모체로 설립됐다. 전국의 43개 연계조직(지방 독서추진협의회)과 함께 독서추진 국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협의회는 어린이 독서주간·잠지월간·독서주간 등을 주관하고 각종 추천도서를 선정하는 한편, 노마(野間)독서추진상, 전국 독서그룹 조사 및 표창, 독서추진 전국 교류회 개최, 학교도서관에 책과 사서교사를 확충하는 운동, 각급 학교의 아침독서운동 확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출판 관련단체들이 협력해 만든 출판문화산업진흥재단(www.jpic.or.jp)의 경우에는 독서 어드바이저의 양성(현재까지 약 1천명) 및 활동 지원, '이야기 마라톤' 전국 순회 지원, 주요 언론과 제휴한 어린이 독서 캠페인, '어린이 책의 날' 캠페인 실시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이런 업계연합 성격 단체들의 활동은 한결같이 서적출판협회, 잠지협회, 도매상협회, 서점연합회, 도

일본의 초·중고 5천개 학교에서 시행중인 '아침독서'를 홍보장려하는 도매상 토한의 광고.

서관협회 등 각 업종단체의 발의와 협력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다양한 독서실태 조사가 매년 시행되고 있다.《요미우리(讀賣)》《마이니치(毎日)》등의 일간지는 물론 전국대학생협동조합연합회(대학생),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초·중·고생), 이에노히카리(家の光)협회(농민) 등의 독자조사는 독서환경을 진단하는 데 긴요한 실증자료로 활용된다. 세밀한 독자조사, 단체간 협력에 따른 프로그램 작성, 독서 프로모션의 분업적 시행과 지역 네트워크화 등 민간 독서운동의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보태지고 있어 일본의 독서운동은 활기를 더해 가고 있다.

출판시장은 독서환경의 일부분이다. 독서환경은 독자를 재생산하고, 확대재생산된 독자가 출판시장의 규모를 키워나간다. 일본의 예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 이제는 책 만드는 일 못지않게 독자를 만드는 업계 공동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그러기에 독서운동이나 독서환경 조성은 미래의 독자를 육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눈앞의 이익에 연연해하는 업계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미래에 투자하는 현명한 자세가 요구된다.●